

日 도쿄대에 한국학연구센터 설립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0-05-27 10:21

국제교류재단 지원..내달 5일 개소식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일본의 최고 명문대학인 도쿄대학교에 한국학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할 '현대한국연구센터'가 생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달 5일 도쿄대 후쿠타케 홀에서 김성엽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하마다 준이치(浜田純一) 도쿄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한국 연구센터 개소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초대 센터장은 재일교포 2세인 강상중 교수(도쿄대 대학원)가 맡고 한국정치를 전공한 도쿄대의 키미야 타다시(木宮正史) 교수와 이시다 히데타카(石田英敬) 교수 등 13명의 교수가 연구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하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자문으로 참여한다고 국제교류재단은 말했다.

이 센터는 앞으로 5년간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일 파트너십 ▲현대 한류문화의 아시아적 환류 ▲동아시아 정보통신(IT) 네트워크 형성과 한일 정보화 ▲동아시아의 도시 네트워크, 서울·도쿄·베이징의 도시 간 교류 ▲21세기 동아시아와 한일 역할 등 5개 주제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재단은 올해부터 5년간 총 100만 달러를 지원하며 도쿄대 측도 사업관련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연구센터 개설을 기념해 한영혜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등 학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한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교류재단 관계자는 "이 연구센터는 일본 내 한국학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과거사와 독도문제 같은 한일관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3297298>

인쇄하기

취소